국내
긴급시황

2026. 3. 23.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증시 하락 배경과 대응 전략

트럼프의 '48시간 최후통첩'에 미국-이란 갈등 고조
고유가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및 긴축 우려 확산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며 장중 코스피가 5%, 코스닥이 4%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11시 기준)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핵심 발전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한은 한국 시각 기준 화요일 아침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발전소가 공격받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중동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다시금 부상했습니다. WTI 유가는 98달러, 브랜트유는 107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장기화 전망에 항공업계가 운항을 줄이기 시작했고, 연료비 급등이 운송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디젤을 비롯한 석유 파생상품의 가격이 매우 많은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美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일부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가치의 상대적 약세로 인해 달러/원 환율은 장중 1,510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당사는 여전히 전쟁의 장기화보다는 협상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측이 서로의 임계점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단기간 내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양측 모두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장기전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주간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었습니다. KOSPI 5,500pt는 12개월 예상 기준 P/E 9.16배, P/B는 1.52배 수준(LSEG 컨센서스 기준)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지수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한 달간 글로벌 증시의 EPS 전망치는 한국 9.7%, 미국 2.4%, 중국 2.3%, 일본 1.4%, 유럽 1% 상향 조정되어 매우 견조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IT 하드웨어(반도체)와 금융 업종이 기여한 만큼, 해당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경우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개시된다면 주가 회복 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도한 공포에 따른 매도보다는 이익과 정책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